

『傷寒論』脈 및 기타 條文의 古文字學的 解釋을 통한 本源的 意味 考察

노영범* 이지환* 하현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65-6 노영범 부천한의원*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i and *Shanghanlun* Provisions Based on Paleography

Yeong-Beom Rho* Ji-Hwan Lee* Ha Hyun-ye*^{*}

Rho-Young-Bum Bucheon Korean medicine clinic, 565-6, Sang 2-dong, Wonmi-gu, Bucheon,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Shanghanlun*(傷寒論) paleography. *Shanghanlun*(傷寒論) must be thoroughly reinterpreted through graphonomy evidence.

Methods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Gangpyeong-Shanghanlun*(康平傷寒論), which is known as the oldest edition of *Shanghanlun*(傷寒論). This study compares the paleographic meaning of *Shanghanlun*(傷寒論), Mai(脈), *Shanghanlun* provisions 96 and 103 to existing interpretations.

Results : Mai(脈) doesn't mean 'Radial pulse(Chon.Gwan.Cheok)' in *Shanghanlun*(傷寒論), so the meaning of Mai(脈) should be redefined. Mai(脈) means 'Continuous movement of human body' based on Chinese paleography. Also it's being verified as reasonable hypothesis in recent clinical researches. In addition, *Shanghanlun*(傷寒論) paleography makes it possible to grasp the true intention of Zhang Zhongjing(張仲景).

Conclusions : *Shanghanlun*(傷寒論) paleography has a limit that it cannot be perfectly applied to clinical diagnosis. Also, it may not represent the whole meaning of *Shanghanlun*(傷寒論). Therefore, the value of *Shanghanlun*(傷寒論) reinterpretation should be recognized through this study, and we should continuously find out future values from *Shanghanlun*(傷寒論).

Key words : *Shanghanlun*. Paleography, Mai(脈)

* Corresponding author : Rho-Young-Bum BuCheon Korean medicine clinic, 565-5, Sang2-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E-mail : jjddju@hotmail.com

· Received : 2015/12/16 · Revised : 2015/12/24 · Accepted : 2015/12/29

서론

『傷寒論』은 서술 구조상 韓醫學의 근본이 되는 最古의 임상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이 『黃帝內經』과는 엄연히 다른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적¹⁾임에도 그동안 『傷寒論』에 대한 연구는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를 가지고 『傷寒論』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상당수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最古의 임상 서적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傷寒論』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韓醫學界에서는 『傷寒論』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傷寒論』의 의학연구방식에 대해 문헌학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²⁾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여러 醫家들의 이론체계에 대한 해석을 배제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진단체계를 설정하여 『傷寒論』에 대한 연구³⁾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역시 『傷寒論』에 대한 새로운 연구 흐름의 일환으로, 『傷寒論』의 古文字學 古釋⁴⁾을 통해 ‘傷寒論의 의미’, ‘脈의 의미’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기존 해석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노 등⁵⁾이 연구한 ‘傷寒論 脈의 古文字學的 解釋과 臨床運用을 통한 올바른 이해’의 증보판으로서, 脈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조문 내 글자의 고문자적 의미 분석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古釋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한 『傷寒論』의 기존 해석은 현재 한 의과 대학에서 정식교재⁶⁾로 활용되고 있는

서적을 대표로 선정하여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傷寒論』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인식하고, 저술 시기의 언어로 『傷寒論』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古文字學 古釋을 통해 『傷寒論』 저술 시기의 문자와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저자의 저술 本意와 『傷寒論』의 미래 지향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본론

고문자학(古文字學, Chinese paleography)은 古文字의 기원·구조·변천 및 풀이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종 문헌을 해독하여 역사와 문화적으로 難題들을 풀어가는 학문이다⁷⁾. 古文字學에서는 商代에서 戰國時代에 이르는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간독(簡牘)과 백서(帛書) 등으로 기록된 문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商代 갑골문은 B.C. 1300~1046 년 사이에 존재하던 실록으로, 이 시기의 관련자료 분석은 당시의 질병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⁸⁾ 의학서의 문자학적 분석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傷寒論』 판본의 古文字 분석은 시대를 이해하고 저술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古文字 연구는 기존의 자료 뿐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 상당히 활발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傷寒論』이라

는 책의 대표적인 판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토문헌 중 더욱 가치가 있는 판본이 발견 되면 오랜 세월이 걸친 권위가 일시에 변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古文字學은 역사나 문화 속에 있어 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로이 알게 해주고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하므로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큰 학문이라 할 수 있다.

『傷寒論』의 古文字學 古釋을 통해 기 대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저술 당시 저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술 의도와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黃帝內經』의 오행이론 체계 질병관은 전국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⁷⁾. 비록 古文字를 통한 『傷寒論』의 해석이 진단과 치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한계는 존재하겠으나, 글자의 구체적인 의미 분석으로 저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질병을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임을 일러두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傷寒論』의 현재 最古 板本으로 추정되는 『康平本傷寒論』⁸⁾을 대상으로 古文字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康平本傷寒論』은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古本¹⁾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원문 편제가 15字行, 14字行, 13字行, 嵌註, 傍註로 정리되어 있어 조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도 타 판본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교정의서국의 교정이나 의가들의 논리가 첨가되어 변형되지 않은 가장 原初本에 가까운 판본인 『康平本傷寒論』을 대상으로 古釋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傷寒論의 의미, 脈의 의미, 96條와 103 條文의 의미를 분석하여 기존의 해석⁶⁾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1. 傷寒論

1. 傷寒論의 의미

傷寒論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포함하는 外感疾患을 총칭하거나 風寒邪의 침입이 원인으로 작용한 질병으로 해석된다. 또는 中風의 의미를 규정 한 2條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해석하기도 한다⁹⁾. 현재 한의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傷寒論』 교과서⁶⁾의 총론에서도 傷寒論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광의의 傷寒은 風寒邪가 인체를 침입하여 일으킨 傷寒 및 일부 온병, 유행성 전염병, 관계 잡병을 포괄하고, 협의의 傷寒은 단순한 外感風寒에 감하여 잠복하거나 전변하지 않고 즉발하여 일으킨 병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傷寒論』이 黃帝內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傷寒論』은 黃帝內經의 의학 관점과 별개로 저술되었으며 원시적 형태인 15字行이 먼저 존재하였고 점차 黃帝內經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康平本傷寒論』에 관한 연구¹⁾가 있다. 또한 편제별로 傷寒의 개념을 구분하고 구체화하여 傷寒의 합리적인 개념과 해석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¹⁰⁾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傷寒論』은 寒邪에 感한 질환들이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 이외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傷寒論의 개념에 대한 古文字的 의미를 분석하여, 제목을 傷寒論으로 택한 저자의 의도와 傷寒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傷寒論의 古文字的 의미⁴⁾

傷(상)

글꼴은 부수로 사용되는 사람 亻(인)과 또 하나의 사람 人(인)의 짧은 변형 꼴, 그리고 양지를 의미하는 易(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 亻(인)은 이 글자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易(양)은 글자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빌려온 글자이다. 동시에 易(양)은 이 글자가 온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易(양)의 고대 문자는 태양이 제단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태양 자체가 아니라 빛, 별을 의미하고 있다 (Fig. 1, 2).



Fig. 1. 易



Fig. 2. 易

장중경이 병세를 뜻하는 여러 글자 중에서 이 글자를 채택한 이유는 인체 내부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따뜻한 기운, 즉 체온과 관계된 증상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傷寒論(상한론)에서의 이 글자의 사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傷寒論(상한론)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傷(상)은 다른 외상 등이 아닌 체온과 관련해 발생한 신체적 불균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傷(상)에 담긴 상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뜻은 화살 矢(시)가 담긴 疾(질)의 의미와 먼저 구별된다. 疾(질)의 글꼴은 상나라 갑골문 때부터 등장하며 쓰임새도 광범위하다. 하지만 장중경은 이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한나라 당시 열병을 특정해 지칭하는 疾(진)이 있었으나 이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 또 당시 傷(상)과 음이 동일해서 호환해 사용하던 殤(상)도 사용하지 않았다. 장중경이 傷(상)을 의미 부호로 고른 것은 이러한 정황 모두를 고려한 뒤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殤(상)도 동일하게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였지만 이 글자는 歹(알)의 부수가 보여주듯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歹의 고대 글꼴은 뼈만 남은 사체의 상형문으로 주검을 나타냈다. 장중경은 여러 신체적 불균형 중에서 체온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상을 의미하는 疾(Fig. 3), 단순한 열병인 疾(Fig. 4), 죽음을 암시하는 殤(Fig. 5)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傷(상)의 글꼴을 통해 인체 내부의 체온 체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증상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 3. 疾

Fig. 4. 疾

Fig. 5. 殤

寒(한)

글꼴은 벽에 얼음이 얼어 있는 집안에 마른 벗짚 등을 쌓아놓은 뒤 사람이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寒(한)의 글꼴은 사람이 인체 밖의 추운 환경, 추운 날씨를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이러한 자형을 고려해 볼 때 傷寒論(상한론)에서는 차가운 기온, 차가운 공기 등에 대한 인체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論(론)

글꼴은 인간의 언어 言(언)과 합 할 습(합)의 생략형으로 기록이 담긴 갑골조각이나 죽간을 묶어놓은 형태의 冊(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의미는 인간의 언어나 사과의 기록들을 모아 책으로 묶어놓은 상태이다.

3. 傷寒의 古文字의 해석⁴⁾

위 세 글자가 형성하고 있는 문장 구조에서, 傷(상)은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 용법의 글자이며 寒(한)은 결과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원래는 명사)이다. 따라서 傷寒(상한)은 인체 내부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따뜻한 기온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부 환경 중 차가운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증세나 상황을 총괄 설명한다. 뒤에 論(론)을 붙인 이유는 인체 내부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따뜻한 기온의 불균형 상태 때문에 외부의 차가운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모두 모아 기록해 놓

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종합해 보면, 傷寒論(상한론) 세 글자는 인체 내부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따뜻한 기온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부의 차가운 기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의 여러 증세, 상황 등과 관련한 모든 관찰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 된다.

II. 脈

1. 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脈은 韓醫學 전체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韓醫學의 근본인 『傷寒論』에서도 脈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傷寒論』에 기록된 398개의 條文 중 脈이 등장하는 條文은 38%¹¹⁾에 이른다. 만약 ‘傷寒*’이란 단어에 脈陰陽俱緊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전체 條文 중 脈이 등장하는 條文은 무려 44%**에 달하며, 특히 處方이 있는 217개의 條文만 놓고 본다면 이 중 脈이 언급된 條文은 과반수를 넘은 53%***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大陽病 提綱인 ‘大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 而惡寒.’에서 ‘之爲病’은 ‘병이 생기기까지 질병의 성립요건 혹은 질병의 원인으로서 작용한 증후들’이라는 해석학적 의미를 가진다²⁾. 따라서 大陽病 提綱의 脈浮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脈은 『傷寒論』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며, 환자의 질

* 『康平傷寒論』 ㉔3. 大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 脈이 있는 條文(176개) ÷ 傷寒論 전체 條文(398개) × 100 = 44.22%

*** 脈이 있는 處方 條文(115개) ÷ 脈이 없는 處方 條文(217개) × 100 = 52.99%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중요한 진단의 근거이다. 따라서 『傷寒論』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¹²⁾.

2. 『傷寒論』 脈에 대한 분석¹⁾

먼저 『康平本傷寒論』는 條文들이 15字行, 14字行, 13字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5字行과 14·13字行 간에는 이론체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저작시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로 15字行은 戰國時代나 西漢時代에 저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14·13字行 및 그 외 조문들은 AD 3세기 경 전후까지 순차적으로 저작된 것으로 현재 추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15字行 條文에는 臟腑, 經絡, 營衛, 津液 등의 개념이 병증의 解釋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五行的인 인체 구조나 병증의 解釋 또한 들어가 있지 않다. 또한, 진단 개념에 있어서도 15字行보다 14·13字行에서 陰陽, 表裏, 內外, 虛實, 氣血, 燥 등의 추상성이 두드러져 두 형식 간의 단절적인 특성을 찾을 수가 있다. 즉, 15字行에는 『黃帝內經』의 이론체계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14·13字行에는 그 설명 방식에 있어 『黃帝內經』의 이론체계가 이용되고 있다.

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15字行과 14·13字行 條文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14·13字行 條文에서는 15字行과는 달리 寸關尺의 脈診 부위가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반면 15字行 條文에서 寸關尺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15字行 條文에서 3차례 언급되고 있는 ‘脈陰陽○○’의 개념이 14·13字行에서는 단 한 차

례도 언급되지 않으며, 14·13字行에는 15字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寸關尺, 經絡 등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脈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15字行은 『黃帝內經』의 이론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후대에 저작된 14·13字行은 『黃帝內經』의 이론체계가 상당수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傷寒論』 脈의 본원적 의미가 寸關尺脈診과는 관계가 없으며, 寸關尺脈診의 개념은 후대 醫家들이 추가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六病 提綱 ‘之爲病’²⁾의 해석학적 의미를 통해 볼 때, 太陽病 提綱의 ‘脈浮’와 少陰病 提綱의 ‘脈微細’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傷寒論』 脈을 寸關尺脈診으로 생각할 경우 요골동맥 상 혈관이 뛰는 양상의 미세한 변화가 인체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혈관이 뛰는 양상의 변화를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傷寒論』 脈의 본원적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를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傷寒論』 저술 당시 ‘脈’이라는 글자가 어떠한 古文字的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傷寒論』은 最古의 임상 서적으로 대표되므로 결국 脈의 본원적 의미는 임상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술 당시 脈의 의미를 임상에 적용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은 기존의 연구들도 검토할 것이다.

3. 脈의 古文字的 의미⁴⁾

* 15字行→14字行→15·14字行的 嵌注→13字行→15·14字行的 傍注 순서로 저작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 脈에 대한 古文字적 연구의 의의

『黃帝內經』 이론체계를 통한 해석에서 벗어나 『傷寒論』의 本意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傷寒論』을 저작된 당시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脈은 『傷寒論』 전체를 통틀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경우 앞으로의 『傷寒論』 연구들 또한 수월해질 것이다.

2) 永에 대한 분석¹²⁾

漢代 馬王堆 帛書(마왕퇴 백서)는 전국시대 말기의 문화와 문자 활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며, 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문헌상 검증 가능한 脈에 관한 最古의 기록이다. 따라서 馬王堆 帛書에 등장한 脈 관련 자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傷寒論』 脈이 저술 당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陰陽十一脈灸經』에는 脈의 두 가지 글꼴(Fig. 6, 7)이 등장 한다¹³⁾. 馬王堆 帛書에서는 肉, 月, 目的 字素가 서로 자유롭게 호환되고 있기 때문에, 좌측의 目 또한 고기 月(육)의 字素가 호환된 것이며, 이는 인체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측의 字素는 永(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글꼴(Fig. 6, 7)은 脈을 의미하며, 이 글자의 형태가 점점 변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脈이라는 글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馬王堆 帛書의 脈 관련 자형들에는 永이 자소로 사용되었으며, 脈의 이전 형태가 脈임을 고려하였을 때 永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古文字的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Fig. 6. 脈

Fig. 7. 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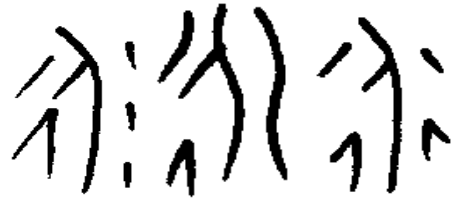


Fig. 8. 永

위의 세 가지 문자(Fig. 8)는 商代 甲骨文에 등장하는 永의 자형들이다. 세 가지 그림 모두 공통적으로 좌측의 字素는 行으로 움직임을 의미한다. 중앙의 자소는 人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우측의 점으로 된 字素는 水를 의미한다. 즉, 永은 行, 人, 水의 세 가지 字素가 조합된 글자로서,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脈(맥)은 ‘인체’를 의미하는 月과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永의 자소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인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脈의 古文字적 해석⁴⁾

脈의 자형은 脈→脈→脈의 순서로 변화되어 왔다. 그 중 張仲景 시대에 사용된 脈의 글꼴은 脈이었다. 脈은 피를 의미하는 血의 字素와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의미하는 脈(과)의 字素로 이루어진 글자이며, 지금의 글꼴과는 달리 張仲景 시대에는 血이 오른

쪽에 脈이 왼쪽에 있었다. 한자 발달 과정에서 왼쪽에 오는 字素가 글자의 주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脈의 의미가 중요하다. 脈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물줄기’라는 의미의 글자이며 영자로부터 변형되어 온 글자이다. 따라서 脈은 피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피의 의미보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른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脈은 혈관 하나를 대상으로 한 관찰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갈래’ 즉, 혈액 순환 전체를 통합하여 인체를 통합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의 글자이다.

4. 『傷寒論』 脈의 의미

1) 『傷寒論』 脈과 寸關尺脈診

지금까지 『傷寒論』과 『黃帝內經』 이론체계의 차이, 脈의 자형 분석 및 『傷寒論』 저술 당시 脈의 古文字的 의미 등을 근거로 『傷寒論』 脈은 寸關尺脈診과는 관계가 없음을 논해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5字行과 14·13字行 저작 시기의 차이, 내용 및 이론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寸關尺脈診은 후대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傷寒論』 脈은 그 의미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2) 『傷寒論』 脈과 움직임·행동

위에서 永은 行, 人, 水의 조합으로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²⁾. 그리고 脈은 인체를 의미하는 月과 永이 합쳐진 글자이므로 ‘인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脈은 단일 혈관이 아닌 인체를 통합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傷寒論』 脈은 인체의 움직임 혹은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며, 기존 임상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합리성을 검증할 것이다.

3) 『傷寒論』 脈과 관련된 기존 임상 연구

『傷寒論』 脈은 인체의 움직임 혹은 행동이라는 가설은 현재 여러 임상 결과물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노와 류¹⁴⁾의 연구에서는 가라앉고 굳는 자세를 脉沈緊으로 진단하여 大陽病 茯苓朮甘湯*을 투여하였고 공황장애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윤¹⁵⁾의 연구에서는 움직임의 과다함을 脉浮(움직임의 넘침)로 진단하여 大陽病** 結胸 麻杏甘石湯***을 투여하였고 난임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행동의 느려지는 양상을 脉遲로 진단하여 陽明病 大承氣湯****을 투여하였고 난임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허¹⁶⁾의 연구에서는 움직임의 과다함을 脉浮로 진단하여 大陽病 五苓散*****을 투여하였고 월경통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 『康平傷寒論』 ㉔67. 傷寒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脉沈緊, 發汗則動經, 身為振振搖者, 茯苓朮支白朮甘朮湯主之.

** 『康平傷寒論』 ㉔1.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惡寒.

*** 『康平傷寒論』 ㉔162. 喘家, 下後不可更行支湯, 若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

**** 『康平傷寒論』 ㉔208. 陽明病, 脉遲, 雖汗出不惡寒者, 其身必重, 短氣腹滿而喘, 有潮熱,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濇然汗出者, 汗出者, 此大便已鞏也, 大承氣湯主之.

***** 『康平傷寒論』 ㉔71. 大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燥, 煩不得眠, 欲將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愈, 若脉浮, 小便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 ㉔72. 發汗已, 脉浮數, 煩渴者, 五苓散主之. ㉔73. 傷

이와 류¹⁷⁾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움직임을 脉浮로 진단하여 大陽病 結胸 甘草瀉心湯*을 투여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傷寒論』脈이 움직임 혹은 행동이라는 가설은 脈의 古文字적 의미와도 부합하고,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어 最古의 임상 서적이라는 『傷寒論』본연의 특성까지도 부합한다. 따라서 앞으로 『傷寒論』脈은 ‘인체의 움직임 혹은 행동’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條文의 古文字적 의미와 해석

『康平本傷寒論』를 古文字學 古釋한 내용 중에서 주요 두 조문 96조와 103조를 예로 들어 조문 내 주요 글자의 古文字의 의미와 조문해석 내용을 살펴보겠다. 기존의 『傷寒論』해석서의 추상적인 해석 방식이 아닌 개별의 글자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조문과 처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조문의 증상들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작용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그 의미가 글자 속에 담겨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傷寒論』이 단순한 방증의 의미를 넘어 병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의 삶을 추적해 가야하는 의학임¹⁸⁾을 증명하는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1. 『康平傷寒論』 96조⁶⁾

寒, 汗出而渴者, 五苓散主之, 小渴者, 茯苓甘草湯主之.

* 『康平傷寒論』 ④158. 傷寒中風, 医反下之, 其人下利, 日數十行穀不化, 腹中雷鳴, 心下痞鞭而滿, 乾嘔心煩不得安, 医見心下痞, 謂病不尽復下之, 其痞益甚, 此非結熱, 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使鞭也. 甘中瀉心湯主之.

④96.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脇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胸下痞鞭,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小柴胡湯主之.

1) 96조문 내 주요 글자의 古文字의 의미⁴⁾

(1) 默(묵)의 古文字의 분석

검을 黑(흑)은 아궁이에 묻은 검댕을 뜻한다. 맨 아래는 불 火(화)이고 위는 아궁이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좌우의 두 점은 검정 그을음을 뜻한다. 오른쪽은 개 犬(견)이다. 이 글자는 원래 개가 검정을 뒤집어쓰고 갑자기 아궁이에서 튀어나올 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놀람과 충격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침묵의 뜻이 파생했다. 傷寒論(상한론)이 默(묵)을 사용하고 고요할 靜(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연유가 있다. 靜(정)은 심신이 안정된 상태의 고요함이지만 默(묵)은 충격이나 허약함으로 인한 조용함이기 때문이다.

(2) 心(심)의 古文字의 분석

고대 문자의 글꼴은 심장을 실제 해부하여 만든 단면도 그림이다. 심방과 심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傷寒論(상한론)에서는 해부학적인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슴 부위를 통합적으로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3) 煩(번)의 古文字의 분석

불 火(화)와 머리 頁(혈)을 통해 화기가

머릿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한나라 당시 특별히 머리에 열이 나는 두통 상태를 표현하던 글자이다. 후대에 흔히 마음이 번거롭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문자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 머리에 나는 열이 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짜증나다 등의 느낌이 파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풀어야 한다.

(4) 嘔(구)의 古文字的 분석

이 글자는 한나라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이다. 장중경의 원뜻을 알 수 없으나 구역질하다는 의미로 풀 수 밖에 없다.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오는 吐(토)와 구별된다.

(5) 痞(비)의 古文字的 분석

병 疒(녁)을 통해 질병임을 암시하고 있다. 부정할 否(부)는 발음을 위해 사용되었다. 똑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不(부)는 단정적인 부정을 의미하지만, 否(부)는 언제나 긍정을 전제로 한 상대적 부정, 선택적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때문에 痞(비) 안에 否(부)를 사용한 이유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서의 증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否(부)는 不(부)와 입 口(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마음속의 부정적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고자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소 구성을 통해 마음에 얽힌 답답함이나 멧힘 등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다.

(6) 悸(계)의 古文字的 분석

설문해자는 ‘心動(심동), 즉 ‘심장이 움직이다’로 풀고 있다. 심장은 항상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심장의 움직임이 특별히 감지되는 상태를 강조하는 데 있다. 심장 心

(심)의 자소와 심장이 떨 때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季(계)를 사용했다. 고대어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다’의 의미를 ‘悸悸然(계계연)’으로 표현하고 있다. ‘K’의 음가를 지닌 글자 季(계)를 사용한 것은 ‘쿵’, 또는 ‘쿵’ 계열의 심장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7) 欬(해)의 古文字的 분석

오른쪽의 하품 欠(흠)은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다. 왼쪽의 亥(해)는 기침할 때에 나오는 ‘핵’, ‘깍’ 등의 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다. ‘H’와 ‘K’는 발음 부위가 동일하여 유사 음이다. 깊은 기침을 묘사하고 있다.

2) 96조의 古文字적 해석⁴⁾

傷寒(상한)의 증세가 5, 6일이 지난 후 中風(중풍) 외부의 차가운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열을 나게 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게 된다. 흉부와 갈비 부분에 고통이 가득하게 되며 말이 없게 되고 마시거나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머리에 열이 나고 구역질을 자주 하게 된다. 혹은 갈비 안이 답답해지지만 구역질은 하지 않는다. 혹은 물을 적극적으로 마시려 들고 혹은 뱃속이 아프다. 혹은 가슴 아래가 답답해지고 굳어진다. 또는 심장 아래쪽이 쿵쿵거리며 두려움이 생기고 소변은 날카롭지 않다. 혹은 물을 적극적으로 마시려 들지는 않지만 몸에 은은한 열이 있고 혹은 기침을 하는 경우 小柴胡湯(소시호탕)으로 증상을 다스려야 한다.

3) 기존 해석과의 비교

『傷寒論』 96조 기존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寒熱이 往來하는 것은 正邪가 相爭하는 것이며 胸脇部의 少陽經의 氣機가 鬱滯되므로 胸脇部가 매우 滿悶하다. 脾胃의 氣가 不暢하므로 精神이 沈黙하게 되어 食欲이 없어지고 膽火가 內擾하므로 心煩이 생기고 脾胃의 氣가 逆하여 嘔吐가 나타난다. 혹은 단지 胸中이 煩擾하되 拘攣하지 않거나, 혹은 口中作渴하면서 小便不利하거나, 혹은 口渴이 없으면서 體表가 微熱하거나 혹은 咳嗽을 겸한 경우에는 모두 小柴胡湯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해석이 오장육부의 기기 변화와 연결 지어 인체의 병리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면 古文字의 분석은 글자 자체에 담겨진 세부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무엇이 그 현상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默默不欲飲食에서 ‘비위의 기가 원활하지 못해 침묵하게 되고 食欲이 없어진다.’는 기존 해석과 비교하여 默(묵)이 충격이나 허약함으로 인한 조용함이라는 의미를 파악한다면, ‘충격이나 허약함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康平傷寒論』 103조

㊦103. 大陽病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湯,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 下之則愈.

1) 103조문 내 주요 글자의 古文字의 의미⁴⁾

(1) 急(급)의 古文字의 분석

한나라 당시 이 글자는 옷이 작음을 의미했다. 맨 위의 필획은 옷의 생략형이고 아래는 손 又(우)의 변형이다. 감정을 뜻하기 위해 마음 心(심)을 더했다. 옷과 몸이 맞지 않아 손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마음 다급해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 鬱(울)의 古文字의 분석

이 글자는 원래 고대 종족의 명칭이었다. 수풀 林(림) 사이에 항아리 缶(부)가 들어 있고 그 아래에 술 이름 鬯(창)이 들어 있다. 鬯(창) 옆의 彡(삼)은 술 항아리에 새겨진 무늬이다. 鬯(창)의 윗부분은 시루의 옆모습과 시루 바닥에 뚫린 구멍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모습이다. 匕(비)는 시루에서 흘러내리는 곡물의 발효액을 받는 국자 모양의 도구이다. 전체적으로 鬱(울)은 숲에 거주하며 독특한 곡주를 담가 아름다운 채색 토기에 보관하던 종족의 명칭이다. 이들 종족은 향기가 강한 약초를 다루기도 했는데 이 약초로 술을 담갔고 이 술은 매우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던 것으로 문헌은 전하고 있다. 즉, 鬱(울) 종족이 다루는 술의 효능을 통해 우울, 답답함 등 마음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호전되어 가는 경험을 근거로 鬱(울)이라는 글자가 점차 우울, 답답함 등을 나타내는 대체 문자로 전환되게 되었다. 하나의 글꼴이 연관되는 의미로 영역을 넓혀가는 변환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글자의 하나이다.

(3) 微(미)의 古文字의 분석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彳(척)과 손의 동작을 뜻하는 攴(복)이 있고 가운데에는 머리를 산발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 있다. 설문해자는 ‘감추어진 상태로 운행하다’로 풀고

있다. 문자의 구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글자는 노인의 느린 몸 상태나 동작 상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단순히 ‘미약하다’, ‘미미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운이 감추어진 상태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풀어야 한다. ‘은근하다’로 풀 수도 있다

(4) 愈(유)의 古文字의 분석

치료를 뜻하는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 당시 병의 치료와 관련된 글자는 瘵(유)가 있었다. 瘵(유)는 병세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었다. 쉬선은 병세를 이긴 상태를 표현하는 글자라고 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외부로부터의 치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내면적 힘이 병세를 극복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나라를 전후하여 발음이 유사한 愈(유)가 병세에서의 호전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나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더욱 심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었음도 유의해야 한다. 한나라 당시 병의 호전을 의미하는 글자 瘵(유)가 있었음에도 傷寒論(상한론)에서 愈(유)를 선택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치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내면적 힘이 병세를 극복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마음 心(심)을 자소로 하는 글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음의 쾌유가 강조된 글자를 단순히 병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瘵(유) 대신에 사용한 의도에 유의해야 한다.

2) 103조의 古文字의 해석⁴⁾

大陽(대양)이 악화되어 병으로 된 증세에

서 -관련- 과정이 지나 십 여 일을 지난 후 오히려 다시 이, 삼일 동안 설사를 하게 한 경우에 사, 오 일 후 柴胡湯(시호탕)을 -복용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먼저 小柴胡湯(소시호탕)을 준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고 심장 아래 부분에 다급함이 -느껴지고- 울적함이 가득하면서 은근히 머리에 열이 나며 짜증이 나면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호전되어 갔던 것이 아니다. 大柴胡湯(대시호탕)을 주어야 하며 설사를 하게 하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된다.

3) 기존 해석과의 비교

『傷寒論』 103조 대시호탕의 기존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만약 구토가 풀리지 아니하고 胃脘部가 拘急하여 鬱鬱微煩한 경우에는 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므로 大柴胡湯을 써서 그 邪實을 瀉下하면 낮게 된다.

이와 비교하여 古文字적 분석에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鬱鬱微煩에서 鬱(울)이라는 글자가 우울, 답답함 등을 나타내는 대체 문자이며 煩이 짜증나다 등의 느낌이 파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 관련된 글자들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심리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병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瘵(유) 대신에 마음의 의미를 담은 글자인 愈(유)를 사용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 역시 병의 발생 원인이 되며 마음의 쾌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찰

저술 당시의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서적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의학계에서는 문자해석에 대한 의미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곧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학문의 형태를 양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傷寒論』 판본 중 最古本으로 알려진 『康平本傷寒論』을 대상으로 저술 시기의 문자의 古釋을 통해 글자와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傷寒論의 의미, 맥의 의미, 조문 96조와 103조를 예로 들어 기존의 해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脈의 자소인 永은 行, 人, 水 세 字素의 조합으로서, ‘생명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 脈의 이전 형태인 脉의 자형은 ‘인체’를 의미하는 月과 永의 조합이다. 따라서 脈(脉)은 ‘인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脈은 혈관 하나에 대한 관찰이 아닌 혈액 순환 전체를 통합하여 인체를 통합적으로 관찰한다는 古文字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¹²⁾. 『傷寒論』 15字行과 14·13字行은 그 이론체계와 저작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며, 『傷寒論』 본연의 모습인 15字行에서는 寸關尺이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 脈을 寸關尺脈診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傷寒論』에서의 脈의 의미는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 『傷寒論』에서의 脈이 인체의 움직임 혹은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

리적인 가설임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傷寒論』 조문에서는 감정과 행동의 패턴과 같은 주관성의 영역을 매우 중요한 병리변화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傷寒論』은 六病과 條文이라는 틀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별적인 몸과 마음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¹⁸⁾는 연구의 내용과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또한 『傷寒論』 저술 당시의 문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傷寒論』이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감정, 마음의 치유까지 고려한 책임을 강조한 저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古文字 분석은 조문의 단순한 해석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한 글자 한 글자에 함축된 정교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傷寒論』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이 기존의 자의적인 해석서의 형태가 아닌 철저한 문자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해석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古文字的 해석으로 세부적인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傷寒論』 전체의 의미를 대변하거나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때문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임상에서 관찰되는 것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도 좋을 것이다.

개별적인 자형이나 문장에 대한 古文字學의 분석으로 거대한 하나의 학문에 대한 기원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古文字學의 대가 饒宗頤는 두서없어 보이는 고대의 부호들이 연결되어 시대의 전과 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

다¹⁹⁾고 하여 문자분석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傷寒論』의 재해석과 본의에 대한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면서 『傷寒論』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경모, 최승훈. 『康平傷寒論』의 考證을 통한 『傷寒論』과 『黃帝內經』의 비교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9:265-301.
2. 이승인. 『傷寒論』의 의학연구방식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2014; 22(2):1-13.
3.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4.
4. 김경일, 노영범. 상한론의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바다출판사. 2015.
5. 노영범, 오지현, 류희창. 『傷寒論』 脈의 古文字學的 解釋과 臨床運用을 통한 올바른 이해.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3.
6. 김동희 외. 『傷寒論精解』 (개정판). 한의학문화사. 2013.
7. 김경일. ‘疾(질)’ 관련 古文字(고문자) 字形(자형)과 텍스트 검토-문자학적 관점에서의 한의학 기원 문제 탐색의 일환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2014;70:23-45.
8. 김기욱, 박현국. 唐宋時期 『傷寒論』 形成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1; 14(2):98-124.
9. 방정근.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19(4):145
10. 이승인, 정종길. 『康平傷寒論』 내 “傷寒”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1):97-110.
11. 김종수, 박원환. 傷寒論 條文中 脈證에 관한 研究,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0;9:73-93.
12. 김경일. 馬王堆 帛書와 《說文解字》의 ‘脈’ 자형을 통해 본 갑골문 ‘永’의 문화적 내면.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2013;53:257-280.
13. 陳松長 編著. 《馬王堆簡帛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2001:134.
14. 노영범, 류희창.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苓桂朮甘湯을 투여한 大陽病 公황장에 증례 1례.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 6(1):55-62.
15. 윤수민.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한 불임 환자 3례의 임상 보고.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37-54.
16. 허주.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五苓散을 투여한 월경통 치험 1례.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63-70.
17. 이성준, 류희창.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甘草瀉心湯을 투여한 大陽病 結胸 아토피 피부염 치험 1례.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71-78.
18. 김진아, 이성준. 사례분석을 통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의 서사의학적 가치의 탐색.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1-25.
19. 饒宗頤. 『符號, 初文與字母-漢字樹』. 香港, 商務印書館. 1998:2-3.